**Edwin Kim** 프로필 **2022**

“빼어난 지성, 따뜻한 감성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 편곡, 보컬을 아우르는 올라운드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는 에드윈 킴은 예원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재학 중 금호 영재콘서트를 마지막으로 도미, 줄리어드 예비학교를 거쳐, 존스홉킨스 대학 피바디 음악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하였다.

서양 중심적 클래식의 한계를 벗어나 한국적 정서와 클래식 음악 사이의 균형을 찾기위해 연구해온 그는 한국전통음악의 요소를 바탕으로 임동창(피아니스트/작곡가)이 만든 새로운 장르의 피아노 음악 “허튼가락”으로 세계최초 논문 연구 및 발표를 한 바 있다. ‘바하랑’이라는 또 하나의 예명으로 2021년 3월 첫 정규앨범 “아리랑 변주곡”의 앨범 출시와 함께 쇼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그간 세계 각국에서 쌓은 다양한 연주 경험과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K-Classic’의 새로운 지평을 열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다.

버스킹 강연 및 연주, 극단과의 대학로 협업 등 대중음악과 타장르를 융합하는 독특한 기획을 선보임과 동시에 호주국제쇼팽콩쿨 1위,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4위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시드니오페라하우스, 모스크바 심포니, 야마하 라이징 아티스트, 세종예술아카데미 정오의음악회 등 다양한 초청 연주를 소화하고 있는 그는 최근 세계적인 성악가 임선혜, 팝페라 테너 임형주와 함께 연주하며 국내외에서 빠르게 인지도를 다져가고 있다.

현재 Ensemble Evolve의 음악감독, 캐나다 PRISMA Festival, 볼티모어 Piano at Peabody 여름 아카데미 교수로 활동 중인 에드윈 킴은 2022년 제2회 예술의전당 여름음악축제에 선정된 그의 피아노 트리오 ‘Suits’와 더불어 앞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그만의 특별한 기획으로 지속적인 연주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약식프로필**>**

* 예원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재학 중 도미
* 줄리어드 예비학교 졸업
* 존스홉킨스 피바디 음악원 Peabody Institute of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학/석사 졸업
* 존스홉킨스 피바디 음악원 Doctor of Musical Arts 박사학위 취득
* Australian International Chopin Piano Competition 1위 및 Best Polonaise Prize
* Jefferson Symphony International Artist Competition 1위
* 윤이상 국제 음악 콩쿠르 4위
* 2012, 2014 YAMAHA 라이징 아티스트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케네디 센터, 쇼팽 생가, 세종예술아카데미 “정오의 음악회” 등 다수의 초청 독주회
* 제2회 예술의전당 여름음악축제 선정 피아노 트리오 Suits 공연
* KBS FM 노래의 날개위에 30주년 특집방송 (임선혜, 사무엘 윤), 임형주 스승의 날 기념 독창회 출연
* 2021년 독주 앨범 [Arirang Variations] 발매

현)

* Ensemble Evolve 음악감독
* PRISMA Festival 교수, Piano at Peabody 썸머 아카데미 교수